

‘신 해결사’ KIA 변우혁 “홈런보다 팀 승리”



올 시즌 14경기 출전…홈런 없이 12타점 ‘팀내 3위’
수비도 집중하며 입지 넓혀 “개인 성적 의식 안해”
최형우 “한 방 보여주려 말고 지금처럼 하면 된다”

“전광판 안 보려고 해요.”

KIA 타이거즈의 부상 내야에서 ‘해결사’로 떠오른 변우혁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전광판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유는 “힘이 들어갈까 봐”이다.

변우혁은 KIA가 기대하는 우타 거포 자원이다. 하지만 15일 KT전까지 14경에 출전한 변우혁은 그라운드를 돌지 못했다.

14경기에서 52타석에 들어선 변우혁은 14개의 안타로 0.286의 타율을 기록했다. 홈런은 없지만 득점권 상황에서 가볍게 방망이가 움직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0.474의 득점권 타율을 기록한 변우혁은 12명의 타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중요한 순간에 영양가 만점의 타격을 하면서 나성범과 위즈덤에 이어 팀 내 타점 3위다. 두 경기에서는 결승타도 장식했다.

특히 나성범과 위즈덤에 비해 25타석이 적은 것을 감안하면 ‘해결사’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은 변우혁의 페이스다.

하지만 좋은 타격을 이어가고 있는 변우혁을 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열에서 동료들이 똑딱이라고 놀린다. 출루율과 장타율이 같다”며 웃은 변우혁은 “타석에 들어갈 때 전광판을 안 보려고 한다. 괜히 성적을 보면 의식이 될 것 같다. 그런데 다른 팀 선수들을 만나면 잘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했다.

자신의 강점인 파워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상황에 맞는 타격은 팀 안팎으로 인정받고 있다.

있다.

변우혁은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내야의 출루상으로 지난 3월 26일이 풀업을 받았다. 그리고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알짜배기 타격으로 어필하고 있다. 수비에서도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그만큼 변우혁은 홈런에 대한 욕심보다는 ‘유지’를 목표로 팀 승리에 기여할 생각이다.

지금처럼 팀 배팅을 하다 보면 홈런도 나올 수 있다는 게 변우혁의 생각이다. 리빙 레전드 최형우의 생각도 같다.

리그를 대표하는 ‘클러치 히터’ 최형우도 인정하는 2025시즌 변우혁이다.

최형우는 “지금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예전처럼 한 방으로 번가를 해주려고 하기보다 지금은 결대로 (밀어서) 우중간도 치고 당겨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변우혁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최형우는 또 “그렇게 하다가 홈런이 나오고 임팩트가 센 뭉가 나오는데. 팀이 거포로 기대한다고 그 전처럼 무조건 휘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되는 선수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천천히 밟아가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홈런은 언제든 나온다”고 후배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줬다.

홈런으로 타점까지 동시에 올리는 게 변우혁과 팀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홈런이라는 것은 좋은 타격에서 시작하는 만큼 변우혁은 힘빼고 자신 있는 타격으로 발전의 시즌을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변우혁이 올 시즌 홈런 없이도 팀 내 타점 3위를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네일, 업그레이드

KT전 6이닝 무실점 호투
4경기 QS…평균자책점 0.29
구종·이닝 늘리며 견고한 선발

“별로였다”는 포수의 평가에도 KIA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견고한 시즌은 계속된다.

KIA 타이거즈 네일(사진)은 지난 15일 KT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나와 6이닝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다. 이날 KT 워즈 선발 고영표가 11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6이닝 무실점의 피칭으로 맞서면서 3승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네일은 팀의 1-0 승리의 주역이 됐다.

경기가 끝난 뒤 네일과 호흡을 맞췄던 포수 김태균은 “한 방 맞고 나야 정신 차리고 공 똑바로 던진다. 우쭈쭈 해줘야 한다”며 네일의 이날 피칭에 좋은 점수는 주지 않았다.

김태균의 이야기처럼 이날 네일은 1회부터 2사 1·3루 위기를 자초했고, 4회에는 만루 상황도 맞았다. 그래도 결과는 6이닝 무실점이었다.

이날 경기를 통해 네일의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0.29가 됐다.

또 올 시즌 5경기에서 31이닝을 소화한 네일



은 0.81의 이닝당 출루허용률, 0.173의 피안타율을 기록하면서 4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더 견고한 선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일에 대해 이범호 감독은 “지난해에는 중간투수로 활약을 하다 선발로 하는 것이라 이닝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확실히 선발로 많이 던졌고, 미국에서도 시즌 준비를 빨리 했다. 지금은 90~100구까지 던질 수 있는

만큼 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체인지업이랑 많이 배워서 왔다. (지난해처럼) 스위퍼랑 투심만 던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더 좋은 구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시범경기 때 커브랑 체인지업도 많이 던졌다”며 “시즌 들어갈 때부터 더 좋은 공을 던지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했다. 좋은 투수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시 바람 분다…이정후 멀티히트

2루타 등 2안타 1타점 1득점

‘바람의 손자’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무안타 침묵을 한 경기만에 끝내고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 활약을 펼쳤다.

이정후는 16일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방문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를 치고 1타점 1득점을 곁들였다.

이정후의 타율은 0.323에서 0.333(67타수 23안타)으로 상승했다.

또한 시즌 OPS(출루율+장타율)는 1.051이 됐고, 시즌 9번째 2루타로 이 부문 메이저리그 전체 선두를 지켰다.

지난 주말 뉴욕 양키스 원정에서 홈런 3개를 터트리며 최고의 컨디션을 뽐냈던 이정후는 전날 필라델피아와의 4연전 첫날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백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 삼진 3개를 당하는 등 평소 이정후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날 경기는 달랐다.

1회 첫 타석에서 내야 땅볼,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던 그는 2-2로 맞선 6회 2루타로 침묵을 깼다.

이정후는 필라델피아 원손 선발 हे수스 루사르도

의 초구 스윙퍼를 잡아당겨 우익선상 2루타를 터트렸다.

바로 앞 타석에서 루사르도의 스윙퍼에 속아 헛스윙 삼진을 당했던 그는 똑같은 공이 들어오는 걸 놓치지 않았다.

이정후는 폭투로 3루에 간 뒤 월터 플로레스의 내야 땅볼 때 손살같이 홈에 파고들어 3-2로 앞서가는 역전 득점까지 책임졌다.

팀이 3-6으로 다시 끌려간 8회에는 추격에 시동을 거는 적시타를 때렸다.

무사 1·3루에서 타석에 선 이정후는 필라델피아 강속구 윈슨 볼렌 투수 호세 알바라도와 만났다.

이정후는 8구째 몸쪽 높은 시속 100마일(약 161km) 싱커를 공략, 1루와 2루 사이를 통과하는 적시타로 연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적시타로 4-6으로 따라붙고 무사 1·3루 기회를 이어갔으나 후속 세 타자가 모두 범타로 물러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4-6으로 패해 시즌 5패(12승)째를 당했다.

이정후는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보였다.

3회말 1사 1루에서 카일 슈워버의 깊숙한 뜬공을 잡아낸 뒤 정확한 송구로 2루로 태그업 한 1루 주자 브라이스 하퍼를 잡았다.

이정후의 보살은 올 시즌 처음이다.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16일 시티즌뱅크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방문 경기에서 6회초 2루타를 친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방서 열리는 LIV 골프 좋은 성적 내겠다”

장유빈·케빈 나·대니 리 출사표

5월 2일 인천 잭니클라우스 클럽

한국 선수 최초로 LIV 골프에 진출한 장유빈이 5월 한국 대회를 앞두고 좋은 성적을 낼 것을 다짐했다.

장유빈은 16일 LIV 골프가 개최한 온라인 미디어 세션에 케빈 나(미국), 대니 리(뉴질랜드)와 함께 참석해 “대회 장소인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은 작년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열렸던 곳”이라며 “익숙한 코스고, 올해 LIV 대회를 뛰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빨리 한국 팬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2024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상급과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석권한 장유빈은 올해 LIV 골프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올해 LIV 골프 5개 대회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2월 호주 대회 공동 23위다.

LIV 골프는 이달 말 멕시코에서 시즌 6번째 대회를 치르고 5월 2일부터 사흘간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첫 한국 대회를 개최한다.

장유빈은 “처음에는 TV로만 보던 선수들과 같이 경기해 주눅이 들었다”며 “아직 적응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저만의 골프를 칠 수 있다면 더 좋은



온라인 미디어 세션에 참가한 장유빈, 케빈 나, 대니 리(왼쪽부터).

/연합뉴스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전 외에 단체전 성적도 매기는 LIV 골프에서 장유빈은 교포 선수들인 케빈 나, 대니 리와 함께 아이언헤즈 팀에 속해 있다.

모두 한국 코스 경험이 있는 선수들인 만큼 한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

장유빈은 “모든 초점을 한국 대회에 맞춰 훈련하고 있다”며 “컨디션을 끌어 올려서 개인과 팀 우승이 모두 우리 팀에서 나오면 좋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팀 주장인 케빈 나 “내년부터는 팀원 4명을 모두 한국 선수로 채울 계획”이라며 “짧고,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장유빈 2’로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 LIV 골프 개인전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대니 리 역시 “최근 상승세를 한국 대회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대니 리는 이달 초 미국 마이애미 대회에서 공동 9위로 선전했다.

LIV 골프 한국 대회에는 이들 외에도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 윤 람(스페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이다.

교포 선수 앤서니 김(미국)도 지난 시즌부터 LIV 골프에서 활약 중이다. /연합뉴스